

KIA 테이블세터 ‘청 신·호’

〈신종길〉 〈김호령〉

신종길 복귀 후 5경기 멀티히트·김호령 13경기 연속 안타 행진...1·2번 고민 덜어

부지런히 밥상을 차리고 있는 KIA 타 이거즈의 ‘테이블 세터’다.

KIA의 2번 고민이 사라졌다. 앞서 KIA는 김호령을 톱타자로 해 서동욱·이호신·나지완·이진영·강한울·오준혁 등을 투입하면서 ‘임시 테이블 세터’로 한 경기 한 경기를 치렀다. 신종길의 복귀가 2번 고민을 지웠다.

‘폭풍 질주’ 신종길이 부상에서 돌아와 톱타자 역할을 톡톡히 해주면서 김호령이 2번으로 이동해 고정 테이블 세터가 만들어졌다. 고정 라인업이 만들어졌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결과도 잘 나오고 있다는 점이 반갑다.

신종길·김호령 조합이 경기 시작과 함께 부지런히 출루하면서 초반에 꾸준히 득점이 만들어지고 있다. 신종길은 복귀 후 22일까지 5경기 모두 멀티히트를 기록하면서 6득점을 기록했다. 감을 잡은 김호령도 23일 현재 13경기 연속 안타를 때려 내면서 매 경기 출루를 잊지 않고 있다.

또한 두 사람은 KIA에서 손에 꼽는 빠른 발을 가진 선수들인 만큼 이들의 출루가 상대에게 주는 압박감이 크다.



신종길



김호령

맞춤형 타격이 두 사람의 테이블 세터 역할에 큰 힘이 되고 있다.

김기태 감독은 23일 신종길의 최근 활약에 대해 “짧게 잡고 스윙을 하고 있다. 출루가 좋아지고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축했지만 타격 포인트를 앞으로 끌어오는 등 변화를 주면서 김호령의 타격이 정교해졌다. 지난 시즌 하위 타순에 섰던 김호령은 전면에 나서 공격의 포문을 열고 있다.

김호령은 “테이블 세터 자리에서 타격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타석도 많이 돌아오고 체력적으로는 조금 힘든 게 있다. 뒤 타선과는 다른 상황에서 타격을 하는 경우가 많다. 주자 있는 상황보다는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타격을 하게 된다. 출루를 해서 득점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타석에 서게 된다”고 언급했다.

밥상이 잘 차려지면서 중심 타선의 역할이 중요해지게 됐다. 클린업 트리오의 짜임새는 좋다. 김주찬을 필두로 이범호가 4번 타자로 만점활약을 해주고 있고, 브렛 필이 그 뒤를 받치고 있다. 한방 있는 서동욱과 함께 나지완·김주형으로 7번까지 확장형 클린업 라인업을 구축할 수도 있다.

신종길의 복귀와 김호령의 발전으로 갖춰진 견고한 ‘테이블 세터’ 기록을 보이고 있는 마운드의 부족한 힘을 채워줄 새로운 전력이 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8~9회 가니까 쓰러지는 줄... 보시는 분들도 힘드셨겠어요

덕아웃 T 특독

▲보시는 분들도 힘드셨어요

경기를 하는 사람만큼이나 보는 사람에게도 힘들었던 경기였다.

KIA는 지난 22일 롯데와의 홈경기에서 장단 26안타를 허용하면서 5-18, 대패를 당했다. 정동현·전상현 두 고졸 투수가 초반부터 롯데 타선에 못매를 맞으면서 이날 경기는 견잡을 수 없이 전개됐다.

아두치·문규현이 4안타 행진을 했고, 3안타 경기를 한 롯데 타자도 4명에 이르렀다. 정성민은 롯데의 공세에 긴 수비, 짧은 공격이 전개됐다. 스타팅으로 나와 끝까지 경기장을 지켰던 김호령은 “8~9회 가니까 쓰러질 것 같았다. 그런데 보시는 분들도 힘드셨을 것 같다”고 전날 경기를 돌아봤다.

▲잘해보려고 왔어요

23일 KIA의 엔트리 변동이 있었다. 좌완 임기준이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고, 전날 7개의 공을 던진 박준표가 엔트리에서 빠졌다.

불펜의 마당쇠 역할을 하고 있는 박준표가 많은 투구수까지 기록하면서 주말 NC 경기 투입이 불가능한 상황. 결국 KIA는 좌완 강화 측면에서 임기준을 불렀다.

1군에 풀업은 됐지만 퓨처스 기록이 썩 좋지는 않은 임기준. 임기준은 “잘 못하고 왔다. 잘해보려고 왔다”며 각오를 밝혔다.

▲비가 온다는데

내심 비를 바라는 김기태 감독이다. KIA의 5-18 패가 기록됐던 22일에는 장맛비가 예보됐었다. 우천 취소가 예상됐지만 우여곡절 경기가 치러졌고 초반 마운드가 무너지면서 힘겨운 경기를 펼쳐야 했다.

임준혁에 이어 정동현까지 4·5선발이 잇달아 조기 강판당하면서 불펜의 과부하가 걸린 상태.

주말에는 마산으로 가서 KIA의 천적 NC를 상대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김기태 감독은 “내일 비가 온다는데”라면서 장맛비 예보에 반색을 할 수밖에 없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여고생 장타자 성은정

〈금호중앙여고〉

“박성현 언니와 겨루고파”

KLPGA 투어 한경 레이디스 1R 선두권

“박성현 언니와 언제 한번 꼭 겨루고 싶어요.”

여고생 아마추어 강자 성은정(17·금호중앙여고)은 소문난 장타자다. 175cm의 큰 키와 당당한 체격은 웅만한 남자 선수 못지않다. 드라이버 헤드 스피드는 시속 160km가 넘는다. 작년 한화금융을 래시 때 측정된 박성현의 공식 드라이버 헤드 스피드는 162.8km였다.

성은정은 드라이버로 티샷하면 볼이 떠서 날아가는 거리가 260야드가 넘는다. 박성현과 비슷하다.

성은정은 23일 안산 대부도 아일랜드 골프장(파72·6522야드)에서 열린 한국 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비씨카드·한경 레이디스컵 1라운드에서 5언더파 67타를 쳐 선두권에 올랐다. 이 대회에는 박성현도 출전했다. 투어 상금랭킹 1위와 아마추어 추천 선수라는 ‘신분’ 차이 때문에 둘이 동반 라운드를 하려면 2라운드나 3라운드 성적이 비슷해야 가능하다.

성은정은 “박성현 언니만큼 좋은 스코어를 내서 3라운드나 4라운드 때 같이 경기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성은정은 2014년 국가대표를 자진 반납했다. 더 많은 경험을 쌓기 위해서였다. 특히 미국 주니어 무대를 부지런히 다녔다. 지난해 7월에는 U여자주니어 골프선수권대회 정상에 올라 실력을 입증했다.

성은정은 박성현과 나름대로 인연이 없지 않다. 작년 KDB 대우증권 클래식에서 박성현에 이어 준우승을 차지했다. 당시 성은정은 최종 라운드에서 이글 1개와 버디 5개를 쓸어담으며 7타를 줄여



프로 언니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성은정은 “이번 대회 목표는 하루에 4언더파씩 치는 것이다”며 “많은 선배들이 아마추어 시절에 프로 대회에서 우승했듯이 나도 그러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박인비 US女오픈 기권...떨어지는 리우 올림픽

한국 여자골프의 에이스 박인비(28·KB금융그룹)가 7월 7일부터 나흘간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 마틴의 코드바에 골프장에서 열리는 메이저 대회인 US 여자오픈골프대회도 기권했다. 이에 따라 8월 열리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불참할 공산이 더욱 커졌다.

US여자오픈을 주최하는 미국골프협회는 22일(현지시간) 이 대회를 두 차례(2008년, 2013년) 제패한 박인비가 왼손 엄지 부상으로 대회를 기권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박인비의 리우행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박인비는 올림픽 출전에 강한 열의를 드러내고 있으나 부상에서 완쾌하지 못한다면 출전권을 다른 선수에게 양보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특히 나라별 올림픽 출전 선수가 US 여자오픈이 끝난 뒤 7월 11일자 세계 랭킹으로 결정되기에 한국 선수 중 랭킹이 가장 높은 박인비(3위)는 올림픽 불참으로 기권한 후순위의 다른 선수가 태극마크를 탈도록 최대한 서둘러 양보 의사를 건넬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피츠버그의 강정호가 23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PNC 파크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홈 경기에 4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 3회말 선두타자로 나서 우중간 솔로포를 터트린 뒤 덕아웃에 들어오자 팀 동료 서벨리가 장난을 치고 있다. /연합뉴스

강정호, 2년 연속 10호 홈런 강·추 홈런 ‘시즌 2호’ 추신수, 2안타 2득점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리츠)가 시즌 10호 홈런을 쏘아 올렸다. 메이저리그 데뷔 첫 시즌이었던 지난해 15홈런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홈런을 채웠다.

강정호는 23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PNC 파크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홈 경기에 4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해 5-1로 앞선 3회말 선두타자로 나서 우중간 솔로포를 터트렸다.

강정호는 0볼-2스트라이크의 불리한 볼 카운트에서 샌프란시스코 선발 제프 사미자(29·피츠버그 파이리츠)를 받아쳐 담장을 훌쩍 넘겼다. 비거리 129m의 대형 홈런이었다.

강정호는 지난해 9월 무릎 부상 전까지 홈런 15개를 기록했다. 올해는 재할로 5월 7일에야 시즌 첫 경기를 치르고, 출장과 휴식을 번갈아 가며 경기에 나서고 있음에도 놀라운 홈런 페이스를 보인다.

피츠버그는 선발 프란시스코 리리아노



의 5이닝 4실점 부진에다 바뀐 투수 자레드 휴즈가 1이닝 3실점으로 무너져 6-7 역전패를 당하고 2연패에 빠졌다.

/연합뉴스

추신수(34·텍사스 레인저스)가 좌완 투수를 상대로 시즌 2호 아치를 그렸다. 왼손 불펜을 활용해 추신수를 막으려고 했던 상대는 허탈해졌다.

추신수는 23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신시내티 레즈와 홈경기에서 1번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2안타 1홈런 1타점 2득점을 기록했다. 가장 극적인 장면은 텍사스가 5-4로 쫓긴 8회말에 나왔다.

신시내티는 8회말 시작과 함께 추신수가 타석에 들어서자 좌완 불펜 토니 싱그라니를 마운드에 올렸다. 좌타자 추신수를 압박하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추신수는 풀 카운트(3볼-2스트라이크) 접전을 펼치다 싱그라니의 시속 154km 직구를 밀어쳐 좌월 홈런을 만들었다. 14일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전에서 시즌 마수걸이 홈런을 친 뒤, 9일 만에 나온 홈런이다. 추신수는 시즌 첫 홈런도 왼손 투수 손



마나에야를 상대로 쳤다. 또 한 번 왼손 투수를 공략해 홈런을 만들면서 좌완에 대한 부담을 완전히 떨쳐냈다. 텍사스는 6-4로 승리했다.

/연합뉴스